

# “관조와 서정, 순일한 마음이 주는 울림”

‘시산맥’ 대표 문정영 시인  
7번째 시집 ‘술의 뚝스데이’ 펴내  
4차혁명 등 모티브 사랑·이별 투영  
60여명 시인·평론가 감상글 눈길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4차혁명, 지구의 기후환경 등의 소재를 모티브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투영했습니다.” 시 전문지 ‘시산맥’ 대표이자 동주문학상 대표인 문정영 시인(사진)이 7번째 시집 ‘술의 뚝스데이’ (달을 쓰다)를 펴냈다.

“삶의 찰나를 응시하며 쓴 서정적 이야기다. 혼잣말이다. 따뜻한 불음이고 빠 아픈 실연이다”라는 장석주 시인의 평처럼 시인은 자신만의 언어와 감성으로 삶의 속내를 풀어낸다.

3년 만에 펴낸 작품집은 체험이나 매체, 책에서 얻은 간접 체험을 현실화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출간 배경을 묻자 문 대표는 “3년마다 시집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시를 꾸준히 쓰자는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시 전문지를 발간하고 동주문학상을 운영하는 데 에너지를 소진한다면 자칫 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였다. 시인은 시를 씌으로써 존재하고, 시를 통해서만 독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이번 시집에는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40점이 수록됐다. 이전 시집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해설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대신 문 시인의 작품에 관심이 있는 60여명 시인을 비롯해 평론가의 감상글을 게재했다.

사실 지나치게 어려운 해설은 시를 애호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정치하면서도 난해한 이론에 대한 해설도 필요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시를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싶어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시집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해미 시인은 이번 시집을 이렇게 감상했다.

“곧고 순일한 마음이 멀리, 또 깊이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문정영 시인에게서 배웠다... 시인의 성정을 닮아 편안하고 선선하여서, 곁에 두고 오래 마음을 기대고 싶은 시집이다.”

관조와 서정성, 순일한 마음이 시집 ‘술의 뚝스데이’를 관통한다. 단단하고 다정한, 어찌 보면 옛 갈리는 감성일 테지만 극과 극은 통하는 법. 그러한 마음과 시선이 응결된 터라 적절한 긴장과 축축한 물기를 느낄 수 있다.

문 대표는 “60여 명의 시인, 평론가께서 짧은 감상글을 낮은음자리처럼 보내오셨다. 문장의 그늘까지 아름답게 파헤쳐졌다. 감사하다”며 “슬픔도 때로는 빈 동지 같은 내 눈동자를 닮아간다. 이번 생애에서의 일복이 조각칼로 하나씩 나누는 순간에 쓴 작품들이다”고 ‘시인의 말’을 통해 밝혔다.

갈수록 문학 출판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문 시인은 곳곳이 시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다. ‘시산맥’은 지난 2000년 온라인으로 시작해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어나간다는 취지다.

“시는 문학의 꽃입니다. 단지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이 심해진 이후, 그것을 시

를 통해 드러낼 때, 시가 어려워지고 독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좋은 시는 쉽게 읽히면서도 깊이가 있는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다양하게 자신만의 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는 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문학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지만 본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혔다. ‘문학의 꽃’인 시가 어려움 없이 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시를 쓰라, 시인을 발굴하라, 시 전문지를 발간하라, 바쁜 와중에도 그는 수년 간 운동주 시인의 정신을 기리는 ‘동주문학상’을 운영해오고 있다.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주문학상은 지자체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만들어 시상한다. “우리나라 많은 상들이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반해 시인들의 자발적인 펀딩을 통해 조성된 상금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에도 부합한다.

문 시인의 고향은 장흥이다. 그는 “바다와 강과 산이 함께하는 맑은 곳”이라고 했다. 일찍 고향을 떠나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후 서울로 왔지만 “시의 서정은 그런 맑은 고향의 정서이며 부드러운”이라고 했다.

특히 장흥은 내로라하는 소설가와 시인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다. 아마도 그런 정서가 뛰어난 작품으로 승화됐을 것이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기후환경을 위해 웹진 ‘시산맥’으로 점차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를 잘라 만든 종이책을 언제까지 발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다.

“해외에도 시산맥 회원들이 많은 만큼 ‘시산맥 지구별 수비대’를 통해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어린이 백일장’을 개최, 초등학생에게도 기후환경 문제를 알리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에요. 또 하나, 운동주 시인의 생가 개광대 시인들과 함께 중국 연변 명동촌도 들르고, 운동주 시인 묘지 참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런 다녀왔지만 꼭 한번 더 가고 싶어요.”

한편 문 시인은 건국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낯선 금요일’, ‘익’, ‘꽃들의 이별법’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일제강점기 독립 투쟁, 꿈엔들 잊으리오

‘각인각색’ 창작국악뮤지컬 ‘신초영전...’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창작국악뮤지컬 ‘신초영전’ 공연 장면.

〈국악그림 各人各색 제공〉

1949년 6월 6일, 40여 명 무장경찰은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본부를 습격해 특경대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체포한다.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파가 구속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벌인 사건이다.

2019년 초연한 ‘신초영전-꿈엔들 잊으리오’는 이 같은 일화(‘6·6 사건’)를 초점화한 창작 역사극이다. 광복을 위해 싸웠지만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이광우를 모티브로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위로한다.

국악그림 各人各색이 창작국악뮤지컬 ‘신초영전-꿈엔들 잊으리오’를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극은 친일 경찰 허판식(남궁준영 분)의 필박에 청춘과 두 눈을 잃은 독립운동가 신한국(소지원)을 비춘다. 그는 하나뿐인 딸 초영(임현수)과 함께 어느 산골 마을에 도망쳐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역에 ‘매곡 부역자 처단!

빨갱이 소탕!’이라는 공고문이 붙는다. 근래에 입춘하거나 수상한 자로 의심이 되는 누구라도 신고하라는 메시지에 온 마을이 술렁인다. 그날 저녁 판식은 대한민국 경찰로 신분을 위장해 신한국을 압박하고, 초영은 아버지를 빨갱이로 의심해 집을 떠난다. 수십 년 후, 아버지와 늦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영은 외로운 길을 나서는데..

대금 연주에 김승호, 해금은 조아람, 건반은 서주원이 들려준다. 이외 함승우, 정수연, 주현지 배우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공연을 기획한 유태선 감독은 “초연 당시 공연을 잘 마쳤다는 뿌듯함보다, 언젠가 재연을 통해 전하지 못한 부분을 다듬어 역사적 의미를 한 번 더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 투쟁기의 의미가 환기되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주목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어린이 눈으로 본 ‘생명의 소중함’

양정숙 동화작가 ‘와! 알을 낳았어요’ 발간

초등학교생인 현수는 어느 날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선물 받은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한 것이다. 엄마는 ‘까망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지만 현수는 스티로폼상자에 신문지를 깔고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한다.

양정숙 동화작가가 펴낸 ‘와! 알을 낳았어요’(가문비 어린이)는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한 현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하루가 다르게 병아리가 커가면서 벼슬이 생기고 체구도 변한다. 엄마는 삼계탕이라도 끓여먹자고 하지만 현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며칠 후 애어린 사이로 수건 끝이 보이고 그 위에는 노르스름한 알이 놓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어른이 된 까망이가 다시 알을 낳은 것이다.

작품은 병아리를 애지중지 키우는 초등학교생 현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의 중요성, 동물과의 소통 등을 어린이의 눈으로 형상화한 것.



양정숙 작가는 “작품은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병아리와 교감 그리고 작은 병아리가 다시 닭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며 “그림동화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 작가는 조선대에서 문예창작을 광주교육대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전공했다. 지난 2016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동화집 ‘구리구리 똥개구리’, ‘알통이’, ‘까망이’ 등과 그림책 ‘새를 음악회’, ‘섬진강 두꺼비 다리’, ‘백배로 온 합잔이’, ‘돌기네 집’ 등을 펴냈다. 천강문학상, 광주전남아동문학상, 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문화 혜택 누리고 여행 Go~ Go~

전남문화재단, 누리카드 사용 독려... 인증하면 이달까지 여행 상품권

전시장, 공연장, 광장, 지역 축제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전남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 ‘문화 누리고 여행 GO’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전시, 지역축제 등 카드 사용을 인증할 시 상품을 증정한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직접 제출(또는 방문접수)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 내역 화면을 캡처, 문자·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상품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왕복 입장권(문화상), 여수 아쿠아플라넷 입장권(누리상), 담양 딜라이트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권(향유상) 각각 20명과 음료쿠폰 100장(참가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11월 4일 개별 문자발송.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지역민들이 다양한 사용처에서 전남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도서, 사무 분야 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분야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